

http://dx.doi.org/10.17703/JCCT.2020.6.4.553

JCCT 2020-11-68

마이데이터(MyData) 활용의 국내외 현황 및 활성화 방안

Domestic and Foreign Status of Using MyData and Measures for Vitalization

심연숙

Shim Youn Sook

요약 데이터 경제 사회의 진입으로 데이터가 국가 및 기업,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상하며, 개인정보는 맞춤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활용처, 활용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데이터 경제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고, 관련법과 제도 등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주요어 : 데이터경제, 마이데이터, 개인 정보, 정보 보호

Abstract Data has emerged as a key driver of national, corporate and individual competitiveness as a result of the entry into the data economy.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customized services and social problem solving. MyData refers to a new paradigm in which individuals have the authority to manage and control their information and make active decisions on where to use and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MyData, which is emerging as a big topic in the data economy, is a necessary concept in an era when the value of data is important, and related laws and systems should be prepared.

Key words : Data Economy, MyData, Personal Data, Data Privacy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 받으면서 데이터 유통에 기반한 새로운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1]. 데이터경제란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데이터 소비 등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뤄진 생태계(Ecosystem)’를 의미한다[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19 데이터산업 현황조사’를 보면, 데이터 산업 시장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1.3% 성장, 2025년에는 3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1>. 데이터경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개인데이터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

*정회원, 숭의여자대학교 IT비즈니스과 부교수
접수일 : 2020년 10월 26일, 수정완료일: 2020년 11월 08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18일

Received: October 26, 2020 / Revised: November 08, 2020
Accepted: November 18, 2020

*Corresponding Author: heea@sewc.ac.kr
Dept. of IT Business, SoongEui Women's College,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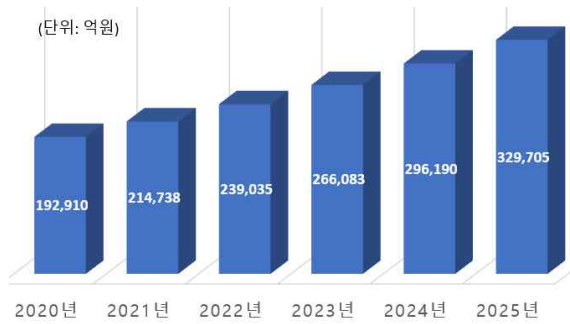


그림 1.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전망
Figure 1. Data Industry Market Size Outlook

터의 약 75 %가 개인데이터로, 기업과 기관들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다 [3]. 데이터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인데이터 비중과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데이터 제공자로서 사용자에게 기업과 기관들의 데이터 활용 전략은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마이데이터(MyData)’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첫째, 문헌연구 및 자료들을 통해 마이데이터의 특징과 출현 배경을 알아본다. 둘째, 국내외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 및 국가별 정책을 비교하여 현 상황을 파악한다. 셋째, 선행연구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국내 마이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마이데이터(MyData)

1. 마이데이터(MyData)란?

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활용처, 활용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정보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4]. 금융권에서 먼저 쓰이게 된 마이데이터 개념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생활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예를 들어 은행, 통신사,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유 중인 자신의 개인 정보를 스스로 한 곳에 모아 두고 신용이나 자산관리 컨설팅과 같은 상세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자발

적으로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는 기관과 정보주체, 서비스 사업자 간의 마이데이터 전달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마이데이터 전달방식 [5]
Figure 2. MyData Transfer System

마이데이터의 기본 원칙은 개인 데이터 통제, 제공, 활용이 개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다.

- 데이터 권한 원칙: 개인이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동, 활용 등에 대한 통제 및 결정권을 가진다.
- 데이터 제공 원칙: 개인이 해당 기업, 기관에 요구할 때 개인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 데이터 활용 원칙: 개인 동의에 의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마이데이터의 개념적인 의미와 원칙은 서비스를 통해 실체를 가지게 되며, 개인들도 서비스를 통해 달라진 개인데이터 패러다임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이데이터 원칙 하에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위하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데이터의 제공자이자 서비스의 사용자인 개인을 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개인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뿐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표 1>과 같은 특징이 있으며, 이와 같은 특징들이 기존 개인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마이데이터 서비스 특징
Table 1. Features of MyData Services

특징	내용
투명성 (Transparency)	어떠한 개인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누가 접근하는지 공개
신뢰성	개인데이터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

(Trust)	스 및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
통제권 (Control)	개인이 개인데이터 공유 대상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관리
가치 (Value)	개인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하는 가치를 개인과 공유

2. 마이데이터 출현 배경

지금까지 개인 데이터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왔다. 일반적으로 정보의 활용 및 동의에 대하여 기업이 방법을 제시하면 개인이 동의하는 구조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얻어왔다. 데이터는 개인이 만들었는데, 개인은 그 데이터를 소유하지 못하고 기업들만 이용해왔으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열람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정보는 활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권리를 실제로 알고 행사해 본 사람의 비율은 약 7%에 불과하다. 이렇게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보 주체가 배제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개인 데이터를 기업에서 통제해오면서 기업 간 정보 불균형도 점점 커지게 되었다. 기업의 규모가 차이 날수록 정보 불균형은 점점 커지며 기존 기업들과 정보격차가 있으니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신규서비스가 성장하기도 어려웠다. 특히 정보우위에 있는 금융시장으로부터 최적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이는 복잡하고 다양화된 금융 상품에 비해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에게는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 마이데이터이며, 개인이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3. 마이데이터 활용 현황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정부의 관여 정도, 민간기업의 참여방식, 마이데이터 적용 분야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 국외 동향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의료 및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정책(의무화, 인센티브 등 포함)을 원활하게 추진 해왔다.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회의 ‘스

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라는 제도를 통해 개인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고 있다. 스마트 공시는 소비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가 사용하기 유리한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별로 관리 권한이 있는 개인데이터의 경우 마이데이터 적용이 어려워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개인데이터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6].

영국은 도입 초반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였으나 성과가 저조하여 마이데이터 의무화 제도를 마련하였고, 에너지와 통신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영국의 마이데이터(Midata)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전자적 형식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그 목적은 기업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독려하며, 기업과 소비자간 신뢰증진을 통해 혁신적인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나 PSD2의 도입과 오픈뱅킹 제도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거의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없고 민간연합체의 주도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과 제도보다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핀란드의 마이데이터(MyData)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기업이 아닌 정보 주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이며, 정보주체는 기계가독형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유하며 원하는 곳에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 진담기관으로 교통통신부는 마이데이터 개념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정부 주도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법제화 및 정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 적용보다는 이상적인 마이데이터 모델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론을 수립하고,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마이데이터에 접근한다.

한편 뒤늦게 제도화에 나선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동의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촉진하고 있으며, 은행법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산업과 유사한 ‘전자결제 등 대행업’을 도입하고 금융사로 하여금 대행업자에게 오픈API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는

행, 데이터거래소 등 마이데이터 관련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표 2.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동향 [7]
Table 2. Mydata Trends in Major Countries

국가	미국	영국	핀란드
명칭	스마트 공시 (Smart disclosure)	마이데이터 (Midata)	마이데이터 (Mydata)
추진 목적	소비자효용성 향상	소비자 주권 강화 및 의사결정 능력제고	개인중심의 프라이버시 통제 및 데이터가치 증대
추진 체계	정부전담기관 (OMB, NIST)	정부전담기관 (BEIS) 민간연합체	정부전담기관 (교통통신부, LVM)
관련 정책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for USA	-Better Choices, Better Deals - Open Data Initiative -Open Data Strategy	-디지털비즈니스 성장전략 -데이터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활용 분야	건강, 에너지, 교육 등	에너지, 금융, 통신 등	건강

2) 국내 동향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에서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증진방안’을 논의하였고, 이후 201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때 마이데이터 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종합방안을 통해 전략별 세부추진 방안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상품 정보제공·비교공시를 통한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자문, 신용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업권별 데이터활용을 통한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분야를 가이드로 제시하였다 <표 3>.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산업자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이 각 분야별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 마이데이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부 주관의 ‘본인정보MyData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여 개인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 주체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 3. 업권별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Table 3. Major Mydata Services by Business Area

업권	정보활용	주요서비스
은행	계좌거래내역, 대출잔액, 금리이자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 현황등을 분석	저축, 채테크 방안원 안내 등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카드	카드사용일시, 결제내역, 카드대출	다양한 카드사용 혜택 제공 및 합리적인 소비습관 개선 지원
금투	투자종목, 투자금액, 자산규모 등의 투자 정보를 통해 투자패턴 분석	세제 혜택, 투자습관 개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공
보험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기간, 보장내역 등의 보험정보를 통해 노후 예측 및 건강 분석	연금관리를 통한 노후 설계와 저비용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핀테크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정보 주체의 정보권리 행사 대행
IT	금융과 통신, 유통 등의 데이터와 융·복합	통신정보기반 금융상품, 유통정보기반 금융상품 등 고부가가치 혁신 서비스 제공

2018년에는 금융·통신 등 2개 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 확산 차원에서 의료·금융·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8개의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발굴하였고, 2020년에는 다양한 개인데이터 보유·활용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분야를 개인데이터의 양적·질적 활용 가능성이 풍부한 6개 분야로 확대하고 8개 과제를 선정하였다<표 4>.

각 분야별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의료분야의 경우 강남 세브란스병원은 건강검진 및 처방전 데이터를 개인이 휴대폰 앱에서 직접 내려받아 제3의 기업에게 제공하여 맞춤형 건강관리(활동량, 영양관리 등) 및 식단 추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분야에서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엔에이치엔페이코가 보유한 구매내역, 결제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대학생, 직장인, 은퇴자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신용정보가 빈약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부, 은퇴자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에너지 분야에서는 다음소프트와 세종시가 가구별 에너지(상·하수도, 전력, 가스 등)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대 별 사용량 모니터링, 누진제 적용 시작 구

표 4. 2019-2020 MyData 활용 지원사업[5][8]
 Table 4. 2019-2020 MyData Utilization Support Project

년도	분야	주관 수행기관	과제명
2019	의료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검진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	(주)비이티더블유	응급상황을 위한 개인건강지갑 서비스
	의료	서울대학교병원	MyHealth Data 플랫폼 및 서비스 실증
	금융	(주)엔에이치엔페이코	본인정보 통합조회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에너지	(주)다음소프트	에너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절감 서비스
	유통	(주)한국신용데이터	개인데이터 저장소 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관리 서비스
	유통	한국기업데이터	소상공인 성장을 돕는 문서·자금 플랫폼 서비스
기타	(주)코난테크놀로지	연구자를 위한 매칭 및 분석 서비스	
2020	의료	(주)엔디에스	분산원장증명(DID)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
	의료	(주)평화이즈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개인의료·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
	금융	(주)핀테크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 개발
	금융	(주)NH농협은행	금융서비스를 연결하는 On-Device 기반 마이데이터 결합 플랫폼
	공공	서울특별시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공공 교통수단 클린이용 서비스
	생활	(주)한컴위드	직장인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 M-Box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신용평가 기반 상가 부동산 가치 정보 거래 플랫폼
교통	(주)데이터얼라이언스	Micro-MaaS MyData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데이터 에코시스템 구축	

간 알람 등의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정부주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추진하여 보유기관이 컨소시엄 내 활용 기업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조였으나, 2020년에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

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보 주체 중심의 데이터 유통·활용체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III.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마이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해 1월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기업과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정부는 마이데이터 정책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해 전담기관과 사업분야 간 개인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조율로 마이데이터 정착화를 이끌어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표준화한 후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즉, 마이데이터 표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추후 데이터 판매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의 이전과정에서 정보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안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화 분야로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개인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즉, 금융회사, 통신사, 유통회사 등이 개인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경제 규모의 발전 속도를 볼 때,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실험과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 의료, 에너지 등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 산업분야를 확대 발굴함으로써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변화가 큰 교육 분야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적합한 분야로 여겨진다. 개인 데이터와 교육분야에서 보유

하고 있는 질 높은 데이터 활용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교육 관련 데이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데이터 경제 사회의 진입으로 데이터가 국가 및 기업,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상하며, 개인정보는 맞춤형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고,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통제 권한을 가지고, 개인데이터의 활용처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마이데이터 산업 초기 단계로 국민의 마이데이터 인지도 또한 16.7%로 낮은 편이다[4]. 하지만,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 기관,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와 수행으로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데이터경제 시스템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cases and derivation of implications for domestic application”, Issue 2018-11,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 2018

[7] KOREA Data Agency, “2018 Data Industry White Paper”, 2018

[8]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2919095 Press releas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06.11

※ 본 연구는 2019학년도 숭의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References

- [1] Jung Yong Chan, “Data Economy Revitalization Strateg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KISDI Premium Report 17-04, ISSN 223-6583, pp.2-4, 2017.06.14.
- [2] European Commission,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Data Policy and Innovation, EU, 2017.01.
- [3] Seung Hyeog Moon, “A Study on Securing Global Big Data Competitiveness based on its Environment Analysi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5, No. 2, pp.361-366, May 31, 2019
DOI :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361>
- [4] KOREA Data Agency, “Mydata status investigation”, 2019
- [5]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1966465 Press releas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9.05.16.
- [6] Yoonmi Kim, “Analysis of overseas my data